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 돼지

지명 속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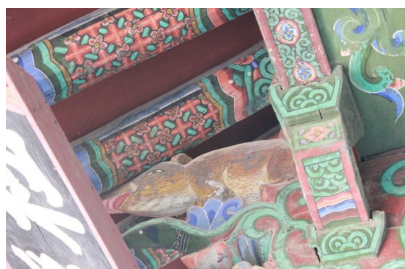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은 2010년 호랑이(경인년, 庚寅年)를 시작으로 매년 우리 국토 속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를 맞아 예로부터 행운, 복(福), 부(富)를 상징하는 동물인 돼지와 관련된 지명을 통해 우리의 문화·역사적 특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경주 불국사 극락전에는 세상 모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극락정토의 복돼지 조각물이 있으며, 지혜로 부귀를 잘 다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 성주사는 명당터(제비둥지혈)인데 대웅전 앞산이 뱀의 형상으로 뱀으로부터 절(제비)을 지키고자 석돈(石豚)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예로부터 제천의식의 제물로 사용되어 제의(祭儀)의 희생(犧牲)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통력이 있는 영물, 길상의 동물로 길조를 나타내고, 잡귀의 침범을 막는 지킴이로서 궁궐이나 사찰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극락전 복돼지



※ 출처: 경주시 공식 SNS

창원 성주사 돼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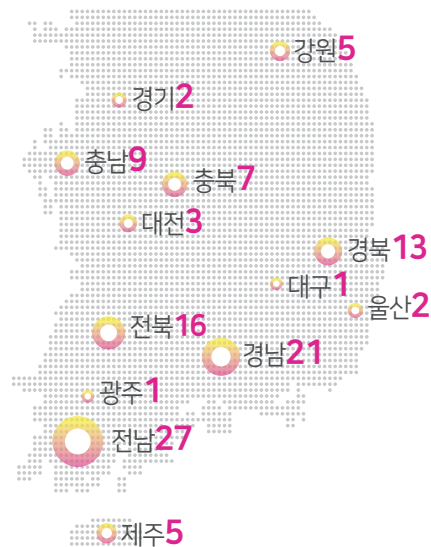
※ 출처: 창원시 공식 블로그

2019년을 대표하는 돼지와 관련된 지명은 전국에 약 112개로 조사되었으나, 지명의 유래, 지역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지명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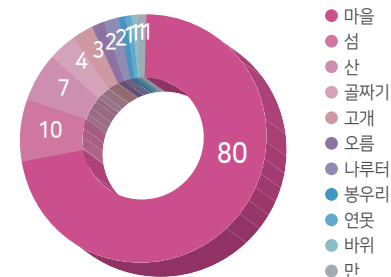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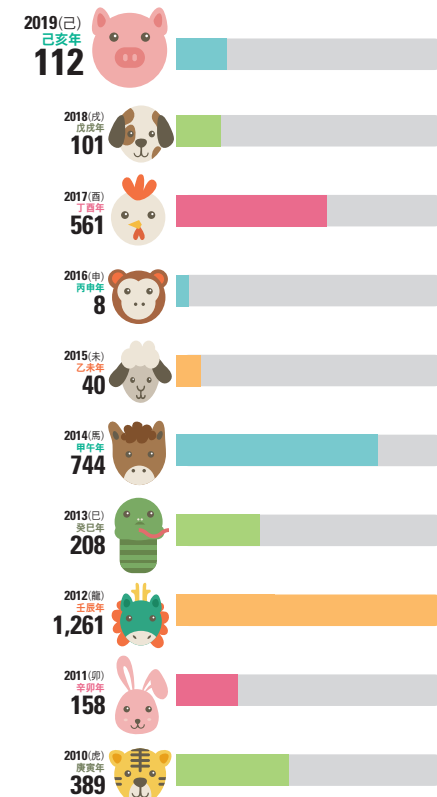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용(1,261), 말(744), 호랑이(389) 등에 이어 돼지는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집마다 돼지를 길렀으며, 행운, 재물 운의 상징으로 여겨온 동물입니다. 또한, '돛섬(저도)', '돼지골', '돈우물' 등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 관련된 지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27곳, 경남 21곳, 전북 16곳, 충남 9곳, 충북 7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 섬, 산, 골짜기 순으로 지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십이지 지명 통계



이 밖에 지명별 분포내용을 살펴보면 돼지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저도'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도동', '돼지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한자는 대표적으로 '시(豕)', '해(亥)', '저(豬)', '돈(豚)'을 비롯하여 돛, 돈, 돌 등 돼지를 뜻하는 옛말이나 방언이 지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이지의 열두번째 동물인 돼지는 시간으로는 해시(오후 9시~11시), 방향으로는 북북서, 달(月)로는 10월에 해당하며, 돼지 꿈, 돼지 그림 등은 길한 상징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물의 신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해시는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고 있는 때로, 돼지는 주로 재물과 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는 습성 때문에 다산(多産)과 풍년의 상징인 동물로 대변되고 있기도 합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써 돼지와 관련되어 있는 지명 "이배산", "사직", "돛진"

돼지는 예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祭物)로 쓰여진 동물로,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로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전해집니다. 고구려 때는 하늘에 제물로 바치는 돼지를 교시(郊豕)라고 하여 특별히 관리를 두어 길렀고 조선시대에도 멧돼지를 납향(臘享)의 제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중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이배산(고도 228m)은 봉우리가 평평한 평지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산등성이가 터져 이무기의 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이배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가뭄이 들어 피해가 극심할 때, 이배산에 돼지머리를 놓고 기우제를 지낸 후 그 돼지

머리를 굴려서 밑에 있는 용뿔으로 떨어지게 하면 비가 온다는 말이 전해져 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당진)에 이배산(利背山)이 현 남쪽 1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해동지도』(당진)에는 '이배산(離背山)', 『1872년지방지도』(당진)에는 '이배산(螭背山)'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들은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북 김제시에는 조선 초기 가뭄이 심할 때,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던 단이 있었던 마을이라 불려온 사직과 경북 울진군에는 가뭄에 용제를 지내는 용바우가 있고, 기제사에는 돼지 머리를 올렸는데 이 돼지머리를 자르는 돛쟁이가 살았다 하여 불리는 돛진이라는 지명이 전해져옵니다.

■ 해동지도(당진) 이배산(離背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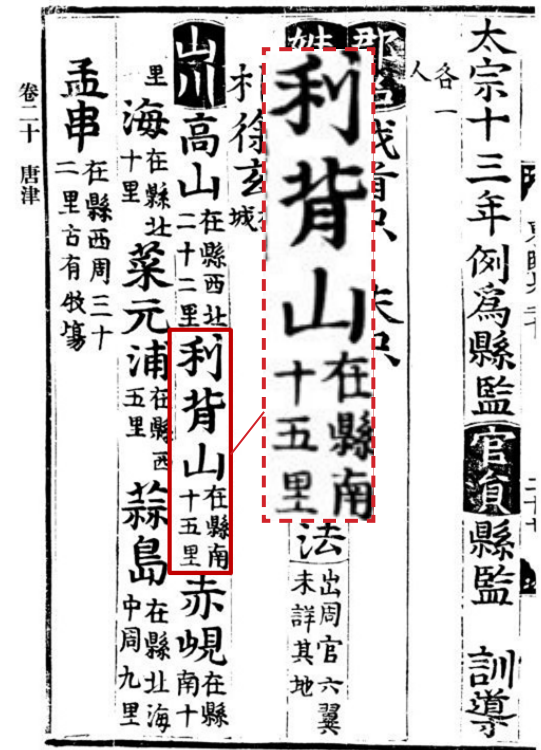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1872지방지도(당진) 이배산(螭背山)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배산(利背山)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황금돼지의 전설, 설화가 전해지는 “돌섬”, “저명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돌섬의 '돌'은 돼지의 옛말로 섬의 형태가 누운 돼지와 같은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락국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사라지자 신하들이 찾아 나서 환궁하기를 청하였으나, 한 줄기 빛이 돼섬으로 날아가니 섬의 모양이 돼지가 누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섬에서는 밤마다 돼지 울음소리와 광채가 빛나 신라시대 최치원이 정성껏 제를 올려 잠잠해진 뒤부터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돌섬에 들어서면서 '황금돼지'상이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전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 이천시에는 돼지가 우는 산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지명이 있습니다. 옛날 근처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산 절벽에만 나는 약초를 뜯어다가 쓰면 신호할 것이라 하여 밭줄에 몸을 묶고 깎아지른 절벽에

■ 해동지도(창원) 돌섬[저도] 일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돌섬의 황금돼지상



■ 돌섬의 황금돼지 지명유래를 활용한 벽화



내려가 약초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산돼지 울음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여겨 절벽을 올라가보니 산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효자의 몸을 매달았던 밭줄이 바위모서리에 굵혀 끊어질 지경이 되었음을 보고 비로소 하늘이 돼지 울음소리로 효자를 살려냈다고 하여 울음명(鳴)자를 붙여 저명산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돌마래미”, “도직골”, “돛밭골”

돼지라는 동물은 옛 선조들에게 행운, 복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돼지는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 돛밭골 일대(강원 삼척시)



밤만 되면 마을 주변의 산에서 멧돼지가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서 몹시 소란스럽게 울부짖었다 하여 마을 이름을 돌마래미라 부르다 후에 돌마래미로 부르게 되었다는 경북 문경시 '돌마래미' 가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에는 돛밭골이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돼지가 많이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돛밭골이라 불려 왔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 의성군에는 산돼지가 자주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도직골이라 칭하여 불렀습니다.



돼지머리의 형태를 닮아 붙인 마을 “돈질산”, “도투머리”, “둔두리”,

예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한 돼지는 그 형태를 닮아 이름을 붙인 지명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는 마을 지형이 돼지머리와 닮아서 도투머리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울산시 울산항 부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돈질산(고도 89m)은 구시가지에서 이 산을 볼 때 돼지의 주둥이가 북쪽으로 튀어나온 듯하며 마치 돼지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돈질산이라 하며, 한자로는 저두산(猪頭山)이라 합니다.

돈 질 산은 예전에는 돛 질 산으로 부르다가 2008년부터 돈질산으로 변경하였는데, ‘돈’은 돼지의 옛말, ‘질’은 머리를 의미하는 방언입니다. 이 밖에도 충남 태안군에는 둔두리, 전남 무안군에는 돈머리(저두리) 등이 있습니다.

도투머리(충남 보령시)



돛오름 전경



※ 출처: 제주관광정보센터

『1872지방지도』저악(猪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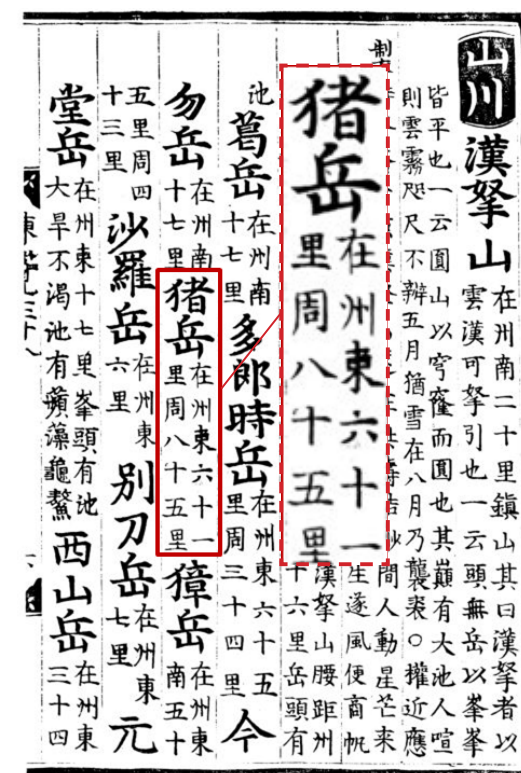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섬과 산의 모양이 돼지의 형상 “돛오름(저악)”, “저섬”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돛오름(고도 283m)은 산의 모양이 돼지 모양으로 돛(도야지) 오름이라 부르며, 한자어로는 저악(猪岳)이라 합니다. 『1872지방지도』에는 저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제주목)』에 ‘주 동쪽 61리에 있는데 둘레가 85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돛오름의 중턱은 초지대로 개민들레, 미나리아제비, 제비꽃 등 초지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동사면은 잡목이 우거진 말굽형 굴부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오름의 북쪽에 위치한 비자림에는 희귀한 난과식물들이 착생하고, 풍란, 너자나무(천연기념물 제182호) 등 2,570여 종이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저악(猪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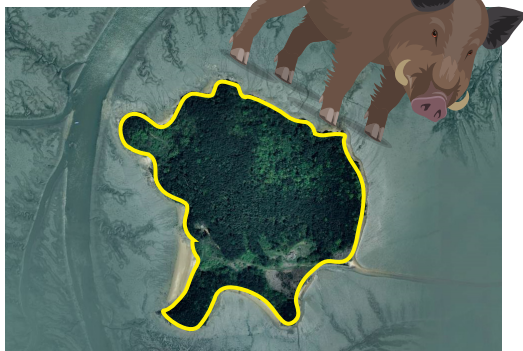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저섬은 섬의 모양이 마치 돼지와 같이 생겼다 하여 섬 이름을 그대로 돼지섬이라 하였는데, 한자표기에 따라 저도가 되었으며, 저섬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섬은 『동여도』에 대산반도 서쪽 연안의 가로림만에 다섯 개의 섬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 제일 위쪽 섬에 해당하며, 한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도(楮島)'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섬의 영상



※ 국토정보플랫폼

『동여도』저도(楮島)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돼지가 많이 나타나 붙인 지명 “제동”, “돼지골”

충남 서천군에는 돼지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의 지형이 험해 산돼지가 많이 나타나는 골짜기라 하여 돼지골이라 불려왔습니다.

이처럼 마을에 돼지가 많이 나타나서 붙여진 지명을 가진 마을이 또 있습니다. 강원 정선군에는 윗제동, 아랫제동 두 개의 골짜기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멧돼지가 많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윗제동길(강원 정선군)



제동과 아랫제동(강원 정선군)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삶과 함께해 온 돼지는 다양한 유래와 전설로 우리 국토 속 지명에 반영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 조상의 얼을 간직한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치 있는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을 가져다준다는 2019년 황금 돼지띠의 해를 맞아 근심걱정 없는 평화와 건강,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